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 03 2023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 차례

1. 시절 인연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2. 법정 스님 편지  
봄 추위가 물러갈 줄 모르는 요즘
3.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행복의 비결 1
4. 법정 스님 따라 하기  
대장장이 춘다 3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선근의 과보
6.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홀로 있는 시간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실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9번 접어서 20쪽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 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탬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3년 3월 1일 발행, 통권 337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을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1. 시절 인연

###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달력 위의 3월은 산동백이 꽃을 피우고 있지만, 내 둘레는 아직 눈 속에 묻혀 있다. 그래도 개울가에 나가 보면 얼어붙은 그 얼음장 속에서 버들강아지가 보송보송한 옷을 꺼내 입고 있다.

겨울 산이 적막한 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거기 새소리가 없어서일 것이다. 새소리는 생동하는 자연의 소리일 뿐 아니라 생명의 흐름이며 조화요 그 화음이다. 나는 오늘 아침, 겨울 산의 적막 속에서 때아닌 새소리를 듣는다. 휘파람새와 삐꾸기와 박새, 동고비, 할미새와 피꼬리, 밀화부리, 산비둘기 그리고 소쩍새와 머슴새와 호반새 소리에 눈 감고 숨죽이고 귀만 열어 놓았었다.

어제 시내를 다녀오는 길에 한 노보살님한테서 받은 선물을 오늘 아침에 풀어 보니, 어떤 조류학자가 숲과 들녘과 섬을 다니면서 채록한 ‘한국의 새소리’들을 출판사에서 펴낸 녹음 테이프였다.

오늘 아침 이 새들의 목청을 녹음으로 들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새롭게 알았다. 밀화부리와 휘파람새 소리는 얼핏 들으면 비슷한 데가 있지만, 자세히 귀 기울여 보면 휘파람새는 밀화부리에 비해 성량이 빈약한 데다 조금은 딱딱하고 그 울림의 끝이 약하다. 밀화부리는 그 목청에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것 같은 아주 음률적인 소리를 띠고 있다.

또 한 가지 배운 것은, 숲에 신록이 번질 무렵 그 새소

리는 가까워서 늘 들으면서도 이름은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 새가 하나는 ‘검은등삐꾸기’이고 다른 하나는 ‘병어리삐꾸기’라는 걸 알고 반가웠다.

영롱한 구슬이 도르르 구르는 것 같은 호반새 소리를 듣고 있으니, 불일암의 오동나무가 떠오른다. 호반새는 부리와 발과 깃털 할 것 없이 몸 전체가 붉은색을 띤 여름 철새다. 초입의 그 오동나무에는 새집이 네 개나 아래서 위로 줄줄이 뚫려 있는데, 초여름이 되면 딱따구리가 새끼를 치기 위해 부리로 쪼아 뚫어 놓은 구멍이다. 그런데 번번이 이 호반새가 와서 남이 애써 파놓은 집을 염치없이 차지하고 집주인 행세를 한다. 사람으로 치면 뻔뻔스런 집 도둑인 셈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목청만은 들을 만하다.

남녘에는 지금쯤 매화가 피어나겠다. 매화가 필 무렵이면, 꼬리를 까불까불하면서 할미새가 자주 마당에 내려 종종걸음을 친다. 할미새 소리를 듣고 있으니 문득 매화 소식이 궁금하다.

영 너머에선 아득히 삐꾸기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삐꾸기 소리는 듣는 사람의 가슴에 어떤 아득함을 심어 주는 것 같다. 밝고 명랑한 피꼬리 소리는 귀로 들리고, 무슨 한이 뻐 것 같은 삐꾸기 소리는 가슴으로 들린다. 밤에 우는 소쩍새의 목청이 차디찬 금속성을 띤 금관악기의 소리라면, 멀리서 들려오는 삐꾸기의 목청은 푸근한 달무리가 아련하게 감도는 목관악기의 소리일 것이다.

피꼬리의 목청은 여럿이서 들을 때 더욱 즐겁고, 삐꾸기는 혼자서 벽에라도 기대고 들을 때가 좋다. 남도의 산에서는 해마다 5월 5~6일경이면 어김없이 피꼬리와 삐꾸기가 잇따라 찾아온다. 처음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반가운지, 마치 앞산 마루에 막 떠오르는 보름달을 대하는 그런 반가움이다. 피꼬리 소리는 가까워서 들을수록 좋고, 삐꾸기는 아득하게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더 어울린다.

산비둘기는 또 무슨 한이 있어 저리도 서럽게 서럽게 우는고, 흐느끼듯 우는 산비둘기 소리를 들으면 내 가슴에까지 그 서러움이 묻어오는 것 같다.

우리 곁에서 새소리가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딱딱하고 메마를 것인가. 새소리는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서 약동하는 소리요 자연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음악이다. 그런데 이 새소리가 점점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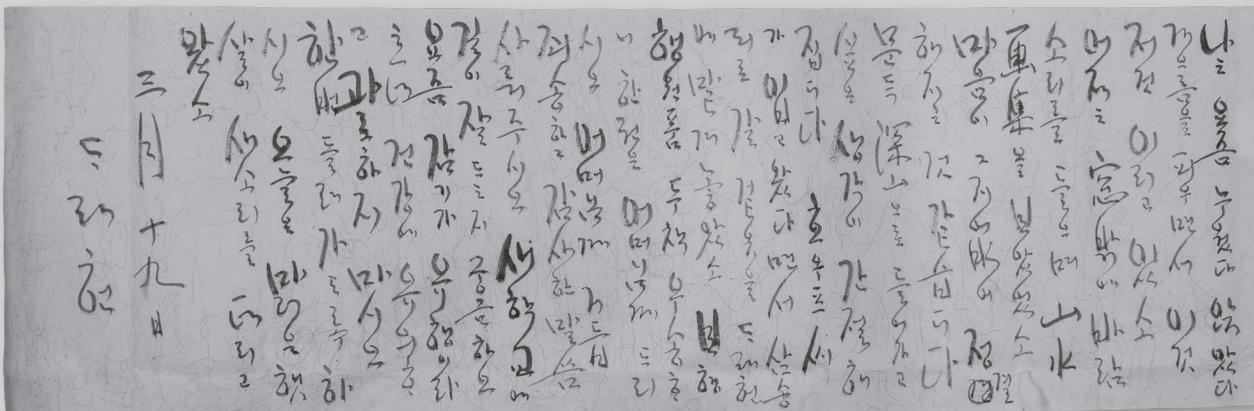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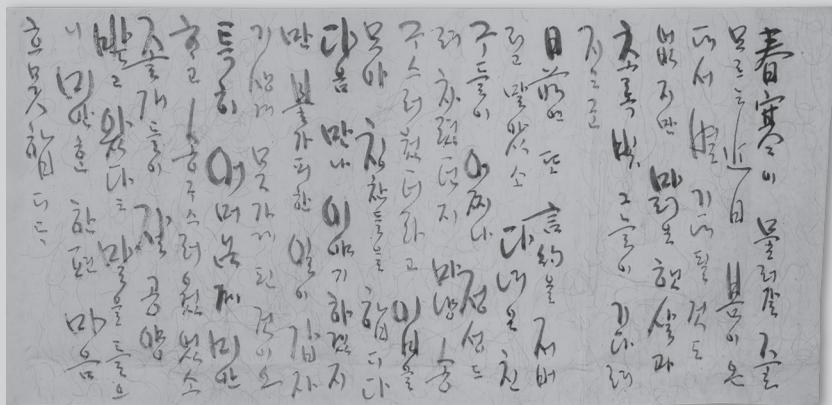
어린 참새며 까치며 희귀 조류까지 사람의 손에 잡혀 먹고, 독한 농약으로 인해 논밭이나 숲에서 새들이 무참히 죽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극심한 대기 오염 때문에 텃새와 철새들도 이 땅을 꺼리고 있다.

새가 깃들지 않는 숲을 생각해 보라. 그건 이미 살아 있는 숲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연의 생기와 그 화음을 대할 수 없을 때, 인간의 삶 또한 크게 병든 거나 다름이 없다.

세상이 온통 입만 열면 하나같이 경제 경제 하는 세태다. 어디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삶의 가치가 있는지 곰곰이 헤아려 보아야 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은 경제만이 아니다. 행복의 소재는 여기저기에 무수히 널려 있다. 그런데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가슴을 우리는 잃어 가고 있다.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1982

## 2. 법정 스님 편지



春寒이 물러갈 줄 모르는 近日, 봄이 온대서 별 기대될 것도 없지만 맑은 햇살과 초록빛 그늘이 기다려지는군. 日前엔 또 言約을 저버리고 말았소. 다녀온 친구들이 어찌나 정성드러 차렸던지 마냥 송구스러웠더라고 입을 모아 칭찬들을 합니다. 다음 만나 이야기하겠지만 불가피한 일이 갑자기 생겨 못 가게 된 것이요, 특히 어머니께 미안하고 송구스러웠었소. 줄개들이 잘 공양받고 왔다는 말을 들으니 미안한 한편 마음 흐뭇합니다. 나는 요즘 누웠다 앉았다 게으름을 피우면서 이것저것 이려고 있소. 어제는窓밖에 바람 소리를 들으며 山水畵集을 보았었

소. 마음이 그지없이 정결해지는 것 같습니다. 문득 深山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호우프 씨가 입고 왔다면서 삼송리로 갈 겹옷을 다래헌에 맡겨 놓았소. 《보현행원품》 두 책 우송하니 한 권은 어머니께 드리시오. 어머니께 거듭 죄송하고 감사한 말씀 사뭇 주시오. 새 학교에 길이 잘 들지 궁금하오.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는데 건강에 유의하고 과로하지 마시오. 한번 들려가도록 하시오. 오늘은 맑은 햇살이 새소리를 데리고 왔소. 三月十九日 다래헌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반야화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 3.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 행복의 비결 1

이 글은 법정 스님께서 어느 해 부처님 오신 날에 하신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니다. 3회에 나누어 실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곁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다시 깨워서 살게 한다면 그 허락받은 세월을 순간순간 어떻게 보내려고 할 것인지 미루어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것도 오늘 우리처럼 시간을 무가치한 일에 낭비하면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내 자신의 행복 점수는 100점 만점에 과연 몇 점이나 될지 한번 각자 점수를 매겨 보세요.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행복에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각기 다른 환경, 다른 상황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이야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행복은 어떤 의미에서 주관적인 가치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행복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는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은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서 우리나라고 배어 나옵니다. 꽃향기처럼 은은히 배어 나와요.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의 행복 비결을 공개할게요.

지난 입춘날이었어요. 대개 입춘 무렵이면 꽃시장에 매화분이 나와요. 매화분을 하나 구할까 하고 갔더니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대로 돌아서기가 안 돼서 바이올렛 화분을 하나 샀어요. 화분 중에서 가장 작은 화분이에요. 바이올렛이라고 하면 오랑캐꽃, 제비꽃인 줄만 알았는데, 잎이 아주 탐스럽고 하얀 꽃이에요.

꽃이 세 송이 피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끌어서 단돈 1500원 주고 사 가지고 왔어요. 아침저녁으로 일과 끝에 물도 주고 보살피고, 두런두런 밤새 잘 잤냐고 안부도 전하고, 그렇게 넉 달 가까이 데리고 살았어요. 그 화분을 대할 때마다 내 가슴이 따뜻해져요.

4월 초에 같은 꽃 화분을 하나 더 샀어요. 나야 원래 성미가 괴팍해서 홀로 떨어져 살기를 좋아하지만, 화분이 홀로 있는 게 적적하고 외로워할 것 같아서 제 친구를 하나 더 데리고 왔다고요. 그것도 1500원어치예요. 같이 곁에 놓았더니 이때부터 서로 시샘을 하듯이 아주 무력무력 자라요.

꽃을 보살피 주고 있으니 내 가슴이 따뜻해지고 넉넉해지더라고요. 이런 것도 행복의 비결이 될 겁니다. 행복이라는 게 뭐 거창하고 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억 원짜리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을 캐낼 수 있어요.

밤중에 제가 자다가 기침을 해요. 알레르기성 천식이래요. 기침을 하면 일단 앉아야 돼요. 누워 있으면 계속 나오니까. 앉아서 방 안에 흩어진 것들을 주섬주섬 정리하고 있으면 기침이 아주 말끔히 가셔요. 이때 아

주 정신이 맑아져요. 한낮이라든가 새벽에 좌선할 때 보다도 한밤중에 깨어 있을 때 아주 정신이 맑아져요. 별도 한밤중에 더욱 영롱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정신 상태도 한밤중에 아주 또렷해져요. 이때 촛불을 끄고 벽에 기대앉아서, 얼음이 풀린 개울물 소리에 귀를 맡기고 있으면 내 정신 상태와 마음이 그렇게 맑고 투명해져요. 맑고 투명한 바로 그 자리가 정토요 별천지라는 걸 실감합니다. 이 밖에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적어도 그 순간만은 둘레의 모든 것에 감사한 생각입니다. 나를 한밤중에 깨워 준 기침 보살에게도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옛사람들이 병고로서 좋은 약을 삼으라는 이런 교훈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거리집니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일 마치고 차 한잔 마실까 해서 물 떠다가 끓이고, 차 도구 같은 거 내놓고 하면 마음이 참 차분해지잖아요. 저뿐만이 아니고 산중에 사는 사람들은 다 느끼겠지만, 내가 이 산중에 살면서 차 맛을 몰랐더라면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거듭 하게 돼요. 향기로운 한 잔의 차를 통해서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을 너무 큰 데서 구하지 마세요. 아주 조그마하고 사소한 단돈 1500원짜리 화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게 변고가 됐건 어떤 상황이 됐건 거부하지 마세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고마워질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은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소한 일상을 누리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가꾸는 일입니다. 마음이 충만해져요.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4. 법정 스님 따라하기

### 대장장이 춘다 3

(《숫타니파타》 83~90 강론에서 계속)

대중 앞에 나서서 말하기가 날이 갈수록 조심스럽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말도 없지만 전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어쩌다 말을 쏟아 버리고 나면 내 속은 텅 빈 항아리처럼 허전하기 짝이 없다.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말로만 떠벌이는 일이 싫다. 아주 싫다.

글을 쓰는 일도 그렇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일어났던 광적인 지역감정과 비이성적인 대립 의식을 곰곰이 생각할수록 내 자신을 포함해서 한국인의 인성人性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대권을 잡겠다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동조자나 추종자, 혹은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지역의 인사라 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자기네 주장과는 다르다고 해서 원수를 대하듯 맞서서 으르렁거리던 한심스런 현실 앞에 말과 글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 파당과 분열과 증오와 어리석음의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우리가 경전을 통해 눈뜬 성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지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지혜를 위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일찍이 눈을 뜬 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눈을 뜨기 위해서다.

우리 각 개인은 커다란 우주 생명의 한 뿌리에서 나누어진 가지들. 뿌리 없이 가지만 존재할 수 있는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서쪽으로 혹은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지가 펼쳐진 것이다. 또한 그 가지의 생기

를 통해서 뿌리는 보다 굳게 뻗어 나간다. 그러니 가지끼리 미워하고 다투는 때 뿌리인들 성할 수 있겠는가.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이란 부처님 법을 팔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진리를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몸소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 삶 자체가 진리일 때 그는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일 수 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그의 신념이 동요하지 않는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아무 근거도 없이 떠도는 말에 놀아나지 않는다. 엉터리나 사이비에 속지 않을뿐더러 진짜를 대했을지라도 거기에 얽매이거나 현혹되지 않는다. 오로지 자기 눈을 맑히고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한다.

‘그는 더럽혀진 것과 더럽혀지지 않은 것, 청정한 이와 청정하지 않은 자를 혼동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눈을 뜨자.

멀쩡한 내 본래의 눈이 있는데 어쩌서 남의 눈에만 의존하려고 하는가. 중의 종류가 많건 적건 내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양식을 지닌 총명한 신앙인은 비본질적인 일에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삶과 이웃과의 관계를 거듭거듭 개선하고 개조해 가면서 새롭게 탄생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사는 지, 인생의 최고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시시로 헤아려 보아야 한다.

눈을 뜨자.

아니, 누가 내 눈을 감겼단 말인가. 사물을 내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보아 온 그릇된 버릇에서 벗어나면 된다.

활짝 열린 눈에는 한 티끌도 가릴 수 없다. 내 눈이 열려야 열린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 선근의 과보

선재동자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장자에게 말했다.

“성자시여,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청정한 대중이 모였으며,  
어떤 선근을 심었기에  
이런 과보를 얻었습니까?”

장자가 말했다.  
“내가 생각하니,  
과거 아주 오랜 겁 전에  
원만장엄圓滿莊嚴이라는 세계가 있었는데,  
부처님 이름은  
무변광명법계 보장엄왕無邊光明法界 普莊嚴王  
여래 · 응공 · 정등각으로  
열 가지 명호가 원만했다.  
그 부처님이 성에 들어오실 때  
내가 음악을 연주하면서  
한 개의 향을 살라 공양했다.  
그 공덕으로 세 곳에 회향하니,  
모든 가난과 괴로움이 아주 사라지고,  
부처님과 선지식을 늘 친견하며,  
항상 바른 법을 들었으므로  
이런 과보를 얻은 것이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보살의 한량없는  
복덕 보배광 해탈문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들은  
불가사의한 공덕의 보배광을 얻고,  
분별이 없는 여래의 신해身海에 들어가고,  
분별이 없는 가장 높은 법운法雲을 받는다.  
또 분별없는 공덕의 도구를 닦고,  
분별없는 보현의 행망行網을 일으키고,  
분별없는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고,  
분별없는 보살의 선근과 평등하다.  
분별없는 여래의 머무시는 데 머물고,  
분별없는 삼세가 평등함을 증득하고,  
분별없는 보안普眼의 경지에 머물고,  
모든 세월 속에 있으면서도  
지치거나 싫증을 내지 않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등근藤根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보문普門성이 있다.  
그 성에 한 장자가 있는데,  
이름이 보안普眼이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길을 떠났다.  
  
선재동자는 법보계 장자에게서 이 해탈 법문을 듣고  
부처님들의 한량없는 지견知見에 깊이 들어갔다.  
또 보살의 한량없이 훌륭한 행에 편히 머물고,  
방편에 통달하고,  
법문을 희구하고,

신해信解를 청정케 했다.  
보살의 한량없는 근성을 예리하게 하고,  
욕락을 성취하고,  
행문行門을 통달했다.  
또 보살의 원력을 더욱 크게 하고,  
이길 수 없는 당幢을 세우고,  
지혜를 일으키고,  
보살의 법을 비추면서 점점 남쪽으로 나아갔다.

등근국에 이르러 보문성이 있는 곳을 찾았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노고를 생각지 않고,  
오로지 선지식의 가르침만을 생각하면서  
항상 가까이 모시고 섬기며 공양하려고  
조심하고 게으르지 않았다.  
마침내 보문성을 보았는데,  
백천 마을이 성을 에워싸고 있으며  
성곽이 높고 도로가 넓었다.  
선재동자가 장자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앞에 나아가 절을 올리고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장자는 말했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구나.  
나는 모든 중생의 여러 가지 병을 안다.  
풍병 · 황달 · 해소 · 열병,  
그리고 귀신과 독충과 수재와 화재로 말미암아 생기는

온갖 병을 나는 방편으로 모두 치료한다.  
병이 든 이가 내게 오면  
누구든지 다 치료해 낫게 하며,  
향탕으로 목욕시키고,  
향과 꽃과 영락과 좋은 옷으로 꾸며 주고,  
음식과 재물을 보시해 조금도 아쉬움이 없게 한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알맞는 법을 말해 준다.  
탐욕이 많은 이에게는  
부정관不淨觀을 가르치고,  
남을 미워하고 성을 잘 내는 이에게는  
자비관慈悲觀을 가르치며,  
어리석은 이에게는  
여러 법의 모양을 분별하도록 가르치고,  
이 세 가지가 균등한 이에게는  
아주 뛰어난 법문을 보여 준다.  
그들에게 보리심을 내게 하려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대비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생사의 무량 고뇌를 나타내며,  
공덕을 늘게 하려고  
한량없는 복과 지혜를 닦고 익히는 일을 찬탄하고,  
큰 서원을 발하도록 하려고  
중생을 조복하는 일을 칭찬한다.  
보현의 행을 닦게 하려고  
보살들이 모든 세계에서  
끝없는 세월을 두고  
여러 행을 닦는 일을 말한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6.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은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호수가 된다  
바쁘다고 밀쳐 두었던 나 속의 나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으므로  
여럿 속에 있을 때  
미처 되새기지 못했던  
삶의 깊이와 무게를  
고독 속에 헤아려 볼 수 있으므로  
내가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분별하며  
내밀한 양심의 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일 수 있으므로  
그래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  
여럿 속의 삶을  
더 잘 살아 내기 위해  
고독 속에  
나를 길들이는 시간이다

##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 2023년 '맑고 향기롭게 대학 장학생' 공모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자는 설립 취지에 따라, 청정한 마음과 탁월한 역량을 가진 불교 인재를 선발하고자 2023년도 제4기 대학 장학생을 공모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서류 접수 : 4월 14일 우편 소인까지 접수.

####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 2일(목)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필사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 정기재정 후원

- 인도 다림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시민서로배우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무국 업무 보조, 사육 청소 봉사자 모집

###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밀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줄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 가난한 절 길상사

(02)3672-5945/전송:(02)3672-5947

#### ●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3월 4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연등 공양을 받습니다.

문의와 접수는 길상사 종무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락전(법당) 연등		지장전(법당) 연등	
대등(가족 · 영가등)	100만 원	영가등	10만 원
가족등	10만 원		
도량(마당) 연등			
가족등 · 영가등 · 수기등			3만 원

#### ● 3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3월 4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보름기도	3월 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3월 9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3월 1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3월 2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지장전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http://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